

신세계그룹, 중소협력사 방역비 전액 지원

이마트 500여곳 등 총 900개사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우선 지원



신세계그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회사의 사업장 방역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상 협력회사 숫자는 신세계백화점 400여개, 이마트 500여개 등 총 900여개 회사로,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다.

신세계그룹은 협력회사의 방역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역 지원에 나서는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 위치한 사

업장은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방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식품·생활·잡화 품목을 거래하고 있는 중소 협력회사 중 경영 사정상 자체 방역이 어려운 반찬, 건어물, 산지 공장, 침구 등의 협력회사를 중심으로 방역 지원에 나서며, 이마트는 노브랜드와 피코크 등 이마트 PL 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 협력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 지원에 나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대문시장 소유주 동승, 4300곳 임대료 인하

코로나 피해 기업 고통 분담
3개월간 임대료 20% 내려



동대문 종합시장 소유주인 주식회사 동승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과 동대문 종합시장의 소유주인 동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고 보증금 인상을 동결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통 분담에 나섰다 1일 밝혔다.

동승은 코로나19 여파로 판매 부진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 종합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약 4300여 개의 점포에 대해 한시적으로 3개월간 임대료 20%를 인하하

기로 결정했다.

또한, 올해 인상 예정이었던 임대료를 3개월간 유보하고,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철회하는 등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아세아그룹, 대구 의료활동 5000만원 지원

한라시멘트는 모회사 아세아시멘트와 함께 대구지역의 의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씩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두 회사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대구지역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두 회사가 포함돼 있는 아세아그룹 차원에서 지원에 동참해 지주사인 아세아가 1000만원, 계열사인 아세아제지 자회사이자 대구에 사업장을 둔 경산제지에서 2000만원을 각각 기탁하는 등 4개사가 총 5000만원을 보탬다.

/김승호 기자 bada@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구매한도 2배 상향

50만원서 100만원으로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함께 제로페이와 연계한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2배 상

향조정키로 했다.

10% 할인 구매 혜택을 적용해 5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한다면 기존엔 45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한도가 2배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90만원을 내면 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소비축진을 통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김승호 기자

우석대 신임총장에 남천현 교수 선임

우석대학교 신임 총장에 남천현(63·사진) 전 수원대 교수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우석학원(이사장 서창훈)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우석대학



교 제14대 총장에 남천현 전 수원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총장 임기는 3월 2일부터 4년이다.

/한용수기자 hys@

영화 ‘기생충’과 표준근로계약서



김보락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4관왕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스태프와 제작사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준수하였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과거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영화계에서는 스태프들이 제작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입법으로 이어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5. 5. 18. 개정시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제3조의4),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96조의2).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 확산시키기 위한 규정을 두어 문화체육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에 대해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재정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다(제3조의5). 그 후 영화진흥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영화는 2015년 약 36%에서 2018년 약 77%까지 늘어났다.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기생충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영화계 흐름에 따라 잘 지키며 작업

을 했을 뿐이라고 답변한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업무 내용에 관하여 제작단계별로 세부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아닌 원거리 로케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 촬영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사용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종료 후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 영화계 근로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 해 10월 영화 제작사 스태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영화 제작사 대표의 임금체불이 문제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스태프들이 고정된 월급을 지급받은 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사무실을 제공받아 일정한 출근 시간에 출근한 점, 업무에 필요한 자재 등 비용을 제작사 대표가 부담한 점, 프리프로덕션 기간 중 제작사 대표가 최종 승인한 월간 촬영계획표 등에 따라 근무하였고 스태프들에게 일정 변경에 관한 재량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영화 제작 스태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입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여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수납

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자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파견허용업종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의 입장에서 파견보다는 도급, 위임 등의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위 제3자, 즉 사용자업주는 파견허용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위 판결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대법원이 사용자업주(도로공사)와 파견근로자(수납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자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원고용주인 파견사업주(외주사업체)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를 당했다더라도 사용자업주는 여전히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외주사업체의 근로자가 외주사업체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적용함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바른

아모레퍼시픽그룹, 코로나19 피해 5억 지원

방호복·장갑 등 의료용품 구매활동
의료진에 바이탈뷰티 명작수 전달도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에 동참하기 위해 총 5억 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기탁금은 코로

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진에 주로 쓰일 예정으로 5억 원 중 현금 3억 원은 방호복, 장갑, 체온계 등 의료용품 구매에 사용한다. 2억 원 상당의 현물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바이탈뷰티 명작수 제품으로 대구·

경북 의료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대표이사 회장은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들어선 만큼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아모레퍼시픽그룹도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족들, 특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인사

◆ **중앙그룹** ◇ 휘닉스중앙(전보) △ 개발본부장 이정림 △ 영업마케팅본부장 장재영 △ 영업BU장 안호엽 △ 마케팅기획팀장 장혜정(승진) △ 수석부장 전찬익 △ 부장 이상용 △ 차장 김병진 △ 차장 유원선 △ 차장 이정연 △ 차장 임성수 ◇ 휘닉스평창(전보) △ 총지배인 송호영 △ 부총지배인 전윤철 △ 총괄세프 김우진 △ 조리팀장 김경열 △ F&B팀장 장기명 △ 객실팀장 박용수 △ 레저운영팀장 정형교 △ 운영기획팀장 염현수(승진) △ 책임매니저 이봉천 △ 선임매니저 김경열 △ 선임매니저 김버들 △ 선임매니저 전형표 ◇ 휘닉스제주(전보) △ 총지배인 허장열 △ 조리팀장 이성

진 △ 운영기획팀장 유용기 △ 시설팀장 권혁주(승진) △ 선임매니저 박재성 △ 선임매니저 이승준 ◇ JTBC(전보) △ 브랜드디자인3팀장 이정훈장 최재철
◆ **재영솔루션** △ 전무 고윤만
◆ **부산대학교** △ 인문대학장 이종봉 △ 공과대학장 조영래 △ 약학대학장 이재원 △ 간호대학장 서지민 △ 나노과학기술대학장 황윤희 △ 정보생명공학대학장 이기준 △ 국제전문대학원장 김상열 △ 법학전문대학원장 손태우
◆ **한서대학교** △ 항공부총장 최세종 △ 대학원장 이재규 △ 국제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장 이태용 △ 인재개발본부장 박창해 △ 재난안전교육원장 최진각 △ 학생종합지원센터장 전애은

◆ **파이낸셜뉴스** △ 그룹경영기획담당 부사장 전선익

부음

▲ 박희규씨 별세, 천희자씨 남편상, 박기태·기형·명희·명주씨 부친상, 최낙송(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장)씨 장인상 = 1일, 실낙원 서울장례식장 5호실, 발인 3일, (02-3420-5356)
▲ 박구일(제17대 해병대 사령관·14~15대 국회의원)씨 별세, 박재연(SBS 콘텐츠파트너십팀 부장)·채병(고려대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교수)씨 부친상 = 1일 오전 6시 4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02-2258-5940)